광로형 광장 설계의 특징과 의의

- 안산 광덕로 테마광장 설계를 중심으로¹⁾ -

정옥주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Characteristics of Boulevard-type Plaza Design

- Focusing on Ansan Gwangduk Theme Plaza Design, Ansan City, Korea -

Jeong, Wook-J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2002 World Cup cheering in front of Seoul City Hall and Seoul Plaza design competition provided an opportunity for the discussion of a variety of discourses regarding our plaza culture. The Gwanghwamun Plaza constructed in 2009 also generated discussions for questions on the function of our plaza as a symbolic, humanistic and utilized place. The questions on whether we have created a plaza culture or what should be done for the design of our plaza are still being explored. The reason is that our plazas were constructed without social consensus regarding identity of our plaza while we are influenced by western plaza ideas. The principle of our plaza culture and shape is not yet discussed and determined. The emergence of discussion sparked by the Gwanghwamun Plaza and the Seoul Plaza can be seen as a positive phenomenon. If we can continue to build creative discourse,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our plaza cultures soon. In this context, the Ansan Gwangduk-ro theme plaza design can be a significant material to be discussed.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plaza was held in 2009 and it is follow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plaza in late 2010. Considering cultural and spatial issues on our plaza in mind, the project will be explained and the identity of the contemporary design will also be explored.

Key Words : Asan Gwangduk Theme Plaza, Plaza Design, Plaza Culture

국문초록

2002년 월드컵 응원의 배경이 되었던 서울시청 앞 교통광장이 설계경기를 거쳐 서울광장으로 조성되면서 광장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논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2009년 조성된 광화문광장 역시 우리 광장문화에 대한 도시 상징적 기능, 인문적 고찰, 도시민들에 의한 활용방식 등 다방면의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광장 문화가 있느냐, 우리 광장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여전히 탐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역사적 흐름에서 광장문화의 발현과 이어져오는 광장 공간 양식이 뚜렷하게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Corresponding author: Wook-Ju Je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3, Fax: +82-2-873-5113, E-mail: wookju@snu.ac.kr

서구적 공간 양식 등이 참조되고, 광장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장이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우리 광장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진 바 없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출현이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는 현상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를 통해 광장 공간과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독창적인 공간문화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산 광덕로 광장 설계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2009년 현상을 통해서 당선된 본안은 2010년 말에 준공되었다. 우리 광장의 문화와 공간구성에 대한 담론 발생을 염두에 두면서 광덕로 테마광장의 설계내용을 중심으로 동시대 광장의 역할과 설계 쟁점을 펼쳐면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는 우리 광장 구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안산 광덕로 테마광장, 광장설계, 광장문화

1. 서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광장이란 원활한 교통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고, 오락, 휴식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시의 기반시설로서(Lee, 2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들에게는 광장이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처럼 특정 장소의 지명이나 사전적 의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놓은 넓은 잔디나 포장 이 넓게 깔린 장소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광장의 현황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전체 광장 개소의 약 75% 정도가 교통광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광장의 다수가 교통과 관련된 시설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역시 시설구분상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의 모습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광로나 교차점의 교통시설의 외형을 지니고 있었다. 본 설계연구의 대상인 안산 광덕로 테마광장은 시설 구분상 4개의 일반광장이 연이어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광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Figure 1

Figure 1. Perspective view of Gwangduk before the plaza constructed
Reference: www.ansantour.co.kr

참조), 안산시청으로 이어지는 상징가로와 연속적인 이미지로 연결되어 있다.

2009년 광화문광장의 조성을 시작으로 2010년 완공된 안산시 테마광장, 그리고 2010년 8월 현상공모 결과를 발표한 부산 중앙광장(가칭) 등이 도시의 광로라는 유사한 공간을 배경으로 광장이 계획, 조성됨으로써 광로의 광장화라는 도시구조 변화에 주목할 수 있었다(Figure 2 참조).

유럽에서 광장은 문화적 공통분모이며 유전인자라는 인식이

Table 1. Current designated plazas status in Korea

City	Ea.	Traffic plaza			Plaza		Landscape plaza	Underground plaza	Building frontage plaza
		Intersection plaza	Station plaza	Main facility plaza	Central main plaza	Community plaza			
Total	4,129	2,917	166	25	58	571	378	8	2
Seoul	270	204	11			37	16	2	
Busan	133	97				4	30	1	1
Daegu	94	58	2		9	11	14		
Incheon	109	71	7	1		18	12		
Gwangju	72	61	3		2	6			
Daejeon	120	57	1		1	47	13	1	
Ulsan	143	124	3			12	4		

Reference: Author edited and cited from Lee (2011).

Figure 2. Perspective examples of Gwangduk main plaza

저변에 깔려 있으며, 우리도 우리 정서 및 상황에 맞는 광장의 모형을 찾아야 할 출발점에서 광장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론은 형성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Chun, 2011). 안산시 광덕로 테마광장의 설계는 우리나라 광장의 모형을 찾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벌여졌던 광로형 광장설계안들과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여 공간구성방식에 대한 답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광덕로 테마광장 공모전에서 벌여졌던 설계내용을 중심으로 유사 광장 프로젝트의 고찰을 병행하면서, 광덕로 테마광장이 갖는 설계 특징의 의의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광로형 광장구성의 지향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한국 동시대 광장의 설계 담론

1. 동시대의 광장 조성과 관련 논의들

과거 우리에게 광장이라는 단어로 가장 밀접하게 인식되던 공간은 여의도 광장일 것이다. 1971년 완공된 뒤 1999년에 공원의 형태로 재구성되기 전까지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장소로, 대통령 선거의 유세장으로, 서울시민들의 거대한 자전거 놀이터로 활용되었다. 당시 여의도 광장은 특별한 시설물이나 식재

공간 없이 아스팔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의도 광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성된 광장으로, 위치나 규모, 그리고 드러나는 형태까지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광대한 아스팔트 공간에 5.16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곳을 각종 군사 퍼레이드와 대규모 반공 쫓기대회가 열리는 전체주의적 대중 동원을 위한 광장으로 이용했다(Lee, 2011). 따라서 여의도 광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의 의사를 피력하는 장소로서의 광장 범주와는 차이가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공터라는 공간적 특징은 뚜렷하였으나, 광장의 공간 구성과 설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논의된 바 없다. ‘비어있는 도시 공간’이라는 광장의 공간개념에 가장 충실했던 사례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우리 광장 구성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소재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전 광장과 같은 무심한 공간이 아닌 적극적인 조성 대상으로서의 광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폭제는 서울시청 앞의 서울광장이었다(Seo, 2010). 교통광장으로서 자동차 중심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던 서울광장은 월드컵 응원을 계기로 축제의 장소로 재인식되었고, 2003년 공모전을 거쳐 2004년 5월 현재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서울광장 공모전은 이전에 없었던 우리 광장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Pae(2003)는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 현상공모를 둘러싼 반

응에 대한 일곱 가지 생각'이라는 글을 통해서 현대 도시가 요청하는 보이드(void)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출판작들의 광장 디자인을 둘러싼 막연한 전통 혹은 생태적 접근에 대한 강박관념을 경계하였다. 서울광장이 조성되던 당시 일간지에서는 타원형태의 디자인이나 사후 유지보수에 있어 잔디재료에 대한 우려 등 광장의 구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Dong-A Daily, 2004. 5. 11), 이는 광장의 외적 요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009년도에 조성된 광화문광장의 공간구성에 대한 논쟁은 보다 첨예하게 전개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SPACE(2009. 9)는 광화문광장의 완공 직후 '광화문광장, 그 한계와 의미'라는 기획을 통해서 도로와 광장과의 관계성, 광장에 설치된 시설물, 그들의 제공에 관련된 이슈, 광장의 활용방안 등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도 광장의 기능과 의미는 물론이고, 광장 자체의 디자인, 광장 구성 요소들에 대한 평가, 플라워카펫이나 스노우보드 점프대 등 임시시설물에 대한 비평 등 다양한 논의도 개진되었다(Joongang Daily, 2009. 12. 9).

2.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조성 논쟁 영향과 시사점

앞서 거론된 다양한 논의에 비춰보았을 때,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조성은 국내 타도시의 광장식 공공공간 조성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온전히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영향만으로 새로운 광장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 여론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표출되던 토론의 장은 분명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도시의 대표성을 지니는 장소로서의 광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논쟁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광장 구성에 필요한 몇 가지 시사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문헌과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광장 설계의 담론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광장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논의이다. Seo(2010)은 광장에 대한 주요한 질문은 광장의 존재 이유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그것은 시민들을 향해 열려 있느냐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광장디자인 가치 판단의 근거는 그 디자인들이 과연 광장을 얼마나 더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드느냐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보다 근본적인 우리 광장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간조형형식에만 치우쳐 온 광장의 논의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이 시민을 통해 동시대의 의식을 표출하는 장소라는 개념은 다양한 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Chun(2011)은 광장이 시민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과 우리 시대 공동체 모습을 이후 세대에 증언하는 장치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 사회에도 광장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동시대 시민의식을 채우는 그릇이라는 것이 광장의 개념이자 역할일 것이다.

둘째, 광장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광장은 그 자체의 개방감과 광장으로 인한 도시성을 경험하기 위해 찾는 곳이다(Jeong, 2009). 광장으로 태어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은 도시로 위요된 공터이다. 광장 그 자체로만 광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도시적 요소가 필수적이다.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많은 논쟁은 광장과 그 주변부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Mun(2011)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제외하면 주변의 상업지구와 연계되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선정한 서구의 사례와는 너무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Chun(2011) 역시 광장이 시민들을 융화하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건축적 요소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광화문광장은 주변과의 물리적 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건축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Han(2009)는 광화문광장의 경우 광장이 끝나는 부분과 도로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광장과 주변부와의 단절을 우려하였다. 결론적으로 광장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인자와 연계될 때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광로형 광장의 조성에는 이러한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설계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광장의 활용에 대한 논의이다. 광장은 한 도시의 무대이다. 무대의 배우이자 관객은 도시민과 방문객이며(Jeong, 2010),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담아내고자 하는 계획이 곧 광장디자인이다(Jeong, 2009). Choi and Kim(2013)은 광장의 기능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면서 광장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 일반적 기능, 학습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는데, 2011년 서울광장의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이용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승과 오락 이외의 집단적인 정치적인 의사표현 행위를 사실상 불허하는 것(Kim, 2009)에 대한 비판이나 광화문이 갖는 상징성을 통한 해결이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과 이용성, 접근성 등 기능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Lee(2009)의 비판은 이들 광장의 상징성에 비례하는 높은 활용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많은 동선의 교점이 집중되고 접합되는 절절점인 광장은 상업적 활동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대중의 빈번한 활용을 유도하여야 한다(Kim, 2009)는 의견이 광장활용의 가장 보편적인 논의의 단면이다. 하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광장에 대한 활용가능성은 보다 풍성하다. 공적인 삶의 장에서 소통의 활성화를 꿈꾸는 한국사회

특유의 에너지는 더욱 다채로운 광장문화를 창출해낼 것(Kim, 2011)이라는 의견이 2002년의 월드컵 응원 이후 공감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조성된 광장으로부터 배우는 우리 광장 설계의 방향성

Seung(2009)은 우리에게 광장은 길속에 있으며, 이 둘은 같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의 역사도시들은 대부분 발생 때부터 광장을 의식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의 광장은 기존의 도시조직을 후에 부수거나 바꾸어 들어간 것(Woo, 2011)이라고 보는 시각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설계연구의 대상인 광덕로 테마광장을 포함하여 광화문광장과 부산중앙광장(가칭)은 길에서 출발하여 광장으로 변모하였거나 계획 중이다. 앞서 거론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광장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그 입지와 구성면에서는 기존의 도시구성을 재조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도시에 광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된 서구의 도시구조처럼 자연스럽게 광장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도시구조에서 넓은 도로가 광장의 모습으로 변경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목격할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교통광장의 상징광장화 쟁점은 보행의 흐름과 도로의 상충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와, 광장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광로형 광장조성은 광장의 중앙배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상황에 최선의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 뿐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가 설정되므로 광장의 경계처리는 가장 중요한 설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도시구조는 광장과 주변의 도시가 일체화된 경우가 많아서 광장성의 발현에 제약을 덜 받는 편이지만, 우리 도시의 경우는 광장성의 발현을 위해서라면 경계의 처리를 통해서 광장과 인접도시를 이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념적으로 광장은 빈 공간이다. 물리적인 환경은 공터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채워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광장은 정치와 기념의 장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업이나 문화, 레크리에이션 등의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시대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이 광장에 장착이 됨으로서 도시의 상징광장은 도시의 또 다른 오픈스페이스인 공원과도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도시적인 오픈스페이스인 광장과 전원적인 오픈스페이스인 공원과 혼성이 우리 시대 광장의 특징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광장 설계의 방향도 사물을 채우는 방식이 아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도

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고려해서 정해져야 한다. 포장면이 많으면 광장, 녹지면이 많으면 광장이라는 이원적이 구별이 점차 모호하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라는 지자체의 상징성, 특수성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조성 스타일의 무비판적 유행은 경계되어야 한다. 설계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았듯이 비슷한 여건의 대상지라 하더라도 광장과 인접한 도시조직과의 관계에 따라 창의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또한 그 도시 상황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찾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필요는 활용의 기대가 충족할 때 드러나는 것이며, 최적의 입지 선정은 그 다음 순서로서 해당 도시를 꼼꼼히 살펴보고 찾아낼 수 있다. 광장은 도시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공간이므로,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 형식은 매우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형식이 다양해도 우리 시대의 광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Seo (2010)의 지적대로 시민으로의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광장의 정의는 물리적인 외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열려 있는지의 여부로 내려질 것이다.

III. 광덕로 테마광장 구상 및 설계

1. 대상지의 이해

광덕로 테마광장 프로젝트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00번지 일대에 연이어 입지하고 있는 일반광장 4개소와 도로를 포함한 44,257m² 면적의 광장 조성사업이었다. 조성사업의 목적은 안산 고잔신도시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산의 대표적 문화, 관광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광장을 계획하는 것이었다.

1) 대상지 분석

계획대상지는 안산시청과 안산호수공원을 잇는 상징축에 준재하는 100미터 폭의 광로이다. 일반광장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장보다는 상징가로에 가까운 형식을 지니고 있다. 대상지의 반경 4km 이내 지역에는 신도시의 특징인 아파트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근교에는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다문화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반경 1km 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광덕로를 중심으로 우측에는 업무시설, 좌측에는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다. 광덕로와 인접하여서는 대형마트 및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지해 있어, 광장 인근으로 외부 유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Figure 3 참조).

2) 주변 상권 분석

안산시에서는 광덕로 테마광장을 도시브랜드가 아닌 도시마케팅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하였다. Do(2009)는 안산시

Figure 3. Surrounding context of the site

Legend: — 자전거도로 — 보행자도로 ● 영화관/대형마트 — 육교

중심상업지구의 침체원인으로 경기침체기 무리한 상업용 건물 신축, 지역의 핵심적 구심 요소의 부재, 지하철 4호선 및 중앙로에 의한 도심지 단절, 역세권과 중심상업지역 간의 연계성 약화, 특색 없는 상가 내 업종 분포, 상업지역 내 불합리한 주차시설, 도로에 의한 상업용지 간 단절, 상가발전을 위한 상인들의 자생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2006년도와 2008년도의 상가공실률 조사를 따르면 광덕로 주변상가인 고잔신도시 상가공실률이 31.16%에서 22.59%로 낮아졌는데(Table 2 참조), 이는 2001아웃렛, 홈에버, CGV영화관이 입점하면서 끼친 영향이라고 판단되며,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o, 2009). 공실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광덕로의 중심상권은 여전히 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주변 6km 내에 30만 명의 잠재적 고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체를 광장의 조성이라는 도시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상권은 광장과 분리하여 고려되기보다는, 광장성의 발현을 위해서 광장의 디자인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

3) 대상지 이슈

광덕로의 일반광장들은 계획단계에서 부여받은 상징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도시 내의 커다란 빈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과하게 설정된 광덕로 주변의 상업시설은 충분한 집객을 이루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중심도로로서의 상징성과 주변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상징성, 접근성 및 안전성, 집객효과, 토양 및 식생, 재활용, 시민참여의 6가지의 주요 설계관련 이슈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이슈는 도시 상징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고잔신도시는 갯벌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역사적 맥락에 존재하고 있으며, 광덕로는 안산시청과 안산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라고 하는 안산의 중요한 키워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물리적 접근과 프로그램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 주제라고 판단되었다(Figure 4 참조). 도시상징에서 설정된 4가지 세부 이슈는 광장의 설계방

Table 2. Vacant ratio of the district buildings

City	Stores parcelled out	Stores launched	2006		2008		Note
			Vacant stores	Vacant ratio(%)	Vacant stores	Vacant ratio(%)	
Total	12,740	10,058	4,202	30.40	2,682	21.05	+9.35
Gojan New Town	8,523	6,597	3,046	31.36	1,926	22.95	+8.77
Choji New Town	2,181	1,661	862	42.19	520	23.84	+18.35
Hangyang Univ. New Town at Ansan Station	2,036	1,800	294	14.37	236	11.59	+2.78

Reference: Recited from Do (2009)

Figure 4. City symbolic aspects

향이나 도입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먼저 서해안 갯벌의 특징은 수경시설의 아이디어로 발전될 수 있다. 과거 도시의 상징도로에서 광장으로 전환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구조물 등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상징도로가 지니고 있던 교통의 축은 녹지와 경관의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는 안산시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청할 것이다.

둘째는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설계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 광장이용과 차량의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의 이슈가 중요시 되었다. 광덕로의 양쪽에는 상업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행흐름을 제약해오던 대형도로가 광장으로 변모한다면, 동서방향을 보행이 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설계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보행과 도로의 상충을 완화하는 다양한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주행 중인 차량으로부터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서 버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운딩을 도입하거나,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에 둘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입체교차인데, 선크로나 오버브리지를 통해서 상업지역에서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광덕로 테마광장의 가장 큰 취약점은 주변상가와의 연계성의 부족에 있는데, 입체교차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조성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Figure 5 참조).

세 번째 이슈는 집객과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일상적인 프로그램과 외국인축제, 거리극축제 등 비일상적인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광덕로의 광장은 집객을 직접 유도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주변 상업시설에 의해 일차적으로 집객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연결을 통해서 다음 활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광덕로 테마광장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공간의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Figure 6 참조).

Figure 5. Consideration of safety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슈인 토양과 재활용에 관한 이슈는 광덕로 조성 이전의 과거 상황과 광장조성사업으로 철거될 현재의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갯벌 매립지라는 과거 상황이 미치고 있는 토양의 특징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해결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슈와, 광장이 조성될 때 철거하게 될 현재의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기억하는 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앞서 거론된 상징성과도 겹쳐지는 부분인데, 갯벌에 대한 관점보다는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에 대한 관점이 부각되었다. 만약 광장에 수목의 식재가 필요하다면 토양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필요하다면 마운딩을 통해 염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법이 필요하였다. 재활용 역시 과거 기억에 대한 상징과 연계될 수 있는데, 특히 기존의 도로를 횡단하던 육교의 구조물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되어 상징과 광장프로그램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Figure 7 참조).

마지막 여섯 번째 이슈는 시민참여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설계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었으나 테마광장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는 주변상관단체나 이용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공간의 사용자 주체의 지위를 확보할 때 광장의 다양한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Figure 8 참조).

Figure 6. Attraction factors and programmes

Figure 7. Issues to recycle (Idea to recycle the over pedestrian bridges)

2. 광장의 구상과 설계안

1) 광장의 개념과 공간 구상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 정리된 설계이슈들과 주변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안산시를 대표하는 상징광장, 시민들이 모여드는 축제광장, 안산의 자연을 연결하는 녹색광장의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설계안을 발전시켰다. 우선 광장의 상징성은 안산시청과 안산호수공원을 연결하는 길목에 광장이 존재함을 부각시키고, 다문화와 연계되는 안산시의 이미지를 광장에 공간적,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갯벌 매립지라는 장소의 정체성을 수경시설에 반영하여 표현하였다. 광장의 축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도시계획의 구조상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물리적으로 광장으로의 안전하고 적극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적으로 핵심적 구심요소가 되기 위해 계절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일상적, 비일상적 광장활용을 제안한다. 평상시 인근 지역의 집객을 효과적으로 광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행의 흐름을 고려하고, 광덕로 변의 대형 집객시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성을 갖추었다. 따라서 대형 집객시설과 광장은 최소한의 거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광장의 배치안에 적용되었다. 현재 광덕로 주변에는 대형 집객시설이 지그재그로 입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광장의 모양도 이에 반응하였다. 광장을 이용하는 도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와의 버퍼 녹지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광장을 둘러싸는 풍성한 녹지대로 구성될 수 있게 하였다. 주변건축물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광장설계에서 녹지축의 설정은 다소 부담되는 결

Figure 8. Citizen participation strategy

Figure 9. Plaza concept and schematic plans

정이었으나, 광로형 광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더불어 광터로는 안산시청과 안산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축이자 동시에 안산의 광덕산과 시화호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는 길목이므로 남북녹지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장과 도로의 경계부를 풍성한 녹지대로 설정한다는 의미도 부가되었다. 이 녹지대는 광장뿐 아니라 근린공원을 겸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대형 집객시설과 광장과의 연계는 입체교차의 방식을 적극 고려하였지만,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건이 조

성된다면 집객시설의 지하와 광장을 직접 연결하는 개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Figure 9 참조).

2) 광장 설계안

광장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광장설계를 진행하였다. 초기의 스케치에서 볼 수 있듯이 광장의 골격은 주변도시와 연결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지그재그 스타일의 기하를 활용하여 광장의 프로그램과 경계녹지대와 연계되는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을 동시에 구상하였다(Figure 10 참조). 교통의

Figure 10. Development progress of plaza design plan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일반광장 29호와 30호는 사이의 도로를 폐쇄하고, 하나의 광장으로 연결하여 보행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4개의 일반광장은 글로벌, 역사, 문화, 생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계안을 발전시켰지만, 개별 광장이 하나의 주제로 귀속되는 것은 경계하였다. 안산시청 쪽의 27호 광장은 상징적 측면에서 글로벌광장으로 발전시켰고, 안산호수공원과 마주 보고 있는 30호 공원은 특히 녹음이 풍부한 환경친화적 공간을 제안하였다. 4개의 주제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광장은 일관성 있고 서로 연계되는 설계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것은 모든 광장에 적용되는 형태적 스타일과 재료 선정의 조화로 드러날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광장의 경계부 녹지와 연속적인 광장부의 연결,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기존 육교의 재활용 설계가 광장의 남북방향 연계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광장을 교차하는 동서방향의 흐름은 광장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주변상가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광장으로 진입하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동서방향의 도로에서 광장으로 진입하는 방식 또한 광장성을 증진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장의 교차로 부분에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도구성과 포장계획이 고려되었고, 광장을 포함한 대상지 일대의 생활축으로써 보행과 자전거의 편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로 반영되었다.

광장은 다시 글로벌광장, 물의광장, 브릿지광장, 갤러리광장, 숲의 광장, 초지광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 된다. 에코스킨이라고 명명된 광장의 주변부 녹지대는 공원의 기능을 가지면서 산책, 대회, 휴식, 간단한 운동 등의 근린프로그램이 수용되며, 이벤트밴드라고 명명된 광장의 중심부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프로그램이 4계절 발생할 수 있도록 공간의 유연성을 고려하였다. 도입되는 시설이나 구조물은 타이달(tidal)폰드, 기존교량재활용을 재활용하는 전망대, 수경시설, 수직정원 등이 있다. 수목은 은행나무 70주와 소나무 24주 등 대상지에 있었던 기존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그늘목으로는 내염성 등을 고려하여 느티나무, 팽나무, 모감주나무, 칠엽수, 청단풍 등을 적극 도입하였다.

3) 장소별 설계안

(1) 글로벌 광장

다민족, 다문화 도시인 안산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광장으로서 존치된 도로포장에 각 나라의 이름을 새긴 글로벌 광장으로 조성하고, 외국인과 안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 페스티벌 및 음식축제, 사진전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 제안하였다(Figure 11 참조).

(2) 역사 광장

Figure 11. Global plaza design

과거 갯벌이었던 땅의 역사와 인접한 시화호를 상징하는 광장으로 밀물, 썰물 주기에 따라 물이 채워지는 폰드로, 물이 빠지면 광장으로 이용되도록 제안하였다(Figure 12 참조).

(3) 복합문화 광장

블록 간 통합을 통해 보행자 이동을 원활히 하여 광장 간 연계성을 높이고, 선큰공간을 조성하여 야외스탠드, 화계, 폰드, 오픈카페, 스포츠 필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제안하였다(Figure 13 참조).

Figure 12. Station plaza design

(4) 에코 광장

시화호/안산호수공원과 가장 인접하여 녹지축의 연결을 도모하고 풍부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Figure 14 참조).

IV. 광덕로 테마광장 설계의 특징과 의의

1. 광로에서 광장으로

광화문광장과 부산중앙광장(가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덕로 테마광장은 100미터 폭의 광로를 광장으로 개조한 경우가

Figure 13. Multi-complex plaza design

다. 광로가 광장으로 변모하는 것은 교통과 맞물려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는 등 결코 유리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쉽다.

Figure 14. Eco plaza design

하지만 유럽 역사도시의 구조처럼 건축행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광장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많은 도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장소도 쉽게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적 도시계획의 결과로 태어난 거대한 광로들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건축입면들에 의해 둘러싸여 광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실현된 광화문광장과 더불어 광덕로 테마광장은 이런 유형의 광장구성에 유익한 참고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상징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광장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르네상스를 맞으며 광장은 도시미화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바로크시대에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형적, 기능적 조화가 강조되었고, 독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위계를 강화하는 부속물로 전략하기도 하였다(Chun, 2011). 광장의 기능은 시민들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광덕로 테마광장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의도를 품고,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기획된 것이었

다. 다행스러운 것은 안산시 상가진흥조합이 설립되고, 광덕로 테마광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관이 공동운영을 지향하면서 많은 주체가 광장의 활용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광장의 설계와 조성은 프로그램과 설계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3. 근린 기능을 포괄하는 광장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의 설계에 대한 논쟁 중 나무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 있었다. 서구적 이미지를 연상해보았을 때는 포장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더 광장에 가깝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해당 공간의 모양새를 통해서 광장역할을 하는지, 공원역할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장의 개념이 시각적 측면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열려 있느냐보다는 활용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개방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냐는 판단과 더 가깝다면 나무그늘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광로형 광장조성에서 문제가 되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정성을 보완하는 차원이 더욱 중요하며, 광덕로 테마광장의 사례처럼 광장의 경계 혹은 일부분이 근린공원적 성격과 결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설계적 판단일 수 있다. 광로형 광장의 설계에서 필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광장과 주변건축물이 도로에 의해서 단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광장이 가져야 할 도시상징성 뿐 아니라, 주변도시의 근린 기능도 수용할 수 있을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결론

광덕로 테마광장의 설계를 통해 설계의 내용 뿐 아니라, 우리의 광장문화와 그 물리적 구성에 대한 고찰을 병행하였다. 광화문광장과 같은 역사적 상징의 공간은 아니지만, 다문화나 거리극 축제 등 특색 있는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수용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오히려 역사 상징적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변의 대형집객시설들과 주변 상업시설과의 연계성이 광장설계에 반영되었다. 서구의 전통적인 시각적 개방성이 극대화된 광장의 형태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광장문화화는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접근적 개방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이용의 쾌적함을 반영할 수 있는 광장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원 자연지형의 특징인 서해안 갯벌이나 과거에 존재했던 육교 등을 설계요소로 활용하여 과거의 장소성을 표현하였다. 광로형 광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광장경계와 도로와의 불안한 공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 광장 외곽으로 녹지를 두어 이용자의 안전과 근린공원으로의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광장문화를 짚어 보았다. 첫 번째는 우리 시대의 광장문화는 상징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과 같은 광장이 가져야 하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동시대의 문화를 수용하는 이벤트의 장으로서 광장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 구성과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성이 광장을 정의하는 지표가 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근린의 기능까지도 포용한 광덕로 테마광장은 광장구성방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우리 도시가 광장을 확보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도시의 일부를 소거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광장이기에 대형 상징가도가 광장으로 변모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광화문광장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건너 접근해야 하는 불리함은 존재하였지만, 도시의 상징공간으로서, 시민의 이용을 증진하는 장소로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기능하도록 광로를 광장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광장이 지역문화의 일부가 되는 방식에 관해서이다. 광덕로는 광장으로서의 잠재력이 뛰어나서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성된 경우이다. 광장성이 약한 장소가 광장으로 조성되다보니 이를 보완하는 시설들이 설계에 반영되면서 주변도시 입면과 일체화된 광장의 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시각적으로 주변부 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주변부의 건물과의 입체적인 연결을 구상해볼 수 있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구현할 수 없었다. 광덕로와 같은 광로형 광장에서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주변부와의 연계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장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래밍과 참여의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Lee(2009)는 공간적, 장소적 관점에서 8가지의 항목으로 광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크게 시민들의 보행접근이 쉬울 것과 시민이 활용하는 데에 불편이나 불안요소가 없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특히 광장의 공간은 걷고, 머무르고, 앉고, 조망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거나 조성되었던 광장 사례를 통해서 우리 광장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의 방향성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 도시상황에서 도시민들이 영유할 수 있는 넓은 공터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도시형성단계에서 상징가도로 조성된 광로들이 광장으로의 변모를 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하지만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광장은 이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공간이 되기 쉽다. 본 설계연구는 우리 광장 구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광장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앞으로 조성될 부산중앙광장과 같은 비슷한 맥락의 과제에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 1. 본 안산시 광덕로 테마광장 설계안은 2009년도에 있었던 설계시공일괄 현상공모의 당선작이다. 이 후 이 광장의 명칭은 안산25시광장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에 다시 새 이름을 공모하여 안산문화광장이라는 새 명칭을 선정하였다.

인용문헌

1. Choi, Wooseok and Giho Kim(2013) A study on the use and function of public square as behavior setting.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4(1): 115-118.
2. Chun, Jin-Young(2011) The origin, transformations, and spacial essence of the square, auri M winter 6: 19-36.
3. Do, Won Jung(2009) Study on Revitalization Scheme of Local Economies: Case of Central Business District, Ansan. A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4. Han, dong-soo(2009) History and tradition are an accumulation of time. SPACE 502: 86-87.
5. Jeong, Wook-ju(2009) A square is a place visted to experience the personal sense of openness and urbanity. SPACE 502: 84-85.
6. Jeong, Wook-ju(2010) Expectation and role for contemporary plaza. Landscape Review. 10: 8-9.
7. Kim, Bacek-Yung(2011) Reflections on the culture of the square space in six hundred-year old city, Seoul. auri M winter 6: 67-81.
8. Kim, Jinho(2009) That's not the Plaza -. The Christian Institute for the 3rd Era 4: 5-12.
9. Kim, Sunyoung(2009) Open space and urban plaza design for public space in city environment. Korea Design Forum & Industrial Forum 22: 47-58.
10. Lee, Chunggi(2009) The edge effect of Gwanghwamun plaza. Korea Architect Institute 18: 252-253.
11. Lee, Sang-Min(2011) Various forms and uses of squares as a public space in Korea, auri M winter 6: 82-98.
12. Mun, Hyunyoung and Jaeun Yoon(2001) A study about place identity of Gwanghwamun square - Consumer use act and attitude and satisfaction in center.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2(4): 129-137.
13. Pae, Jeonghann(2003) Inside the competition - Opinions about basic design for the construction of "Seoul City Hall Plaza".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of Korea 179: 70-71.
14. Seo, Hyun(2010) Apartment and plaza. Landscape Review 10: 8-9.
15. Seung, H-sang(2009) Korean architecture emphasizes the relational aspects between the structures built in a space. SPACE 502: 88-91.
16. Woo, Dong-Seon(2011) Thoughts on squares in east Asia: Focusing on open spaces in China and Japan, auri M winter 6: 37-49.
17. Articles in Dong-A Daily. 2004. 5. 11.
18. Articles in Joongang Daily. 2009. 12. 9.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1월 26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10일(1차)
2013년 12월 23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3년 12월 23일
3 인 의 명 심 사 필